

위험 확인 (재해예측도)

해저드 맵이라고도 불리는 재해예측도는 자연재해가 가져올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범위 등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합시다.

사이타마시의 피해 예측에 관한 정보는 방재 카르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각각의 예측도에는 대피장소나 평소의 대비책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타마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구(區)의 정보 공개 코너에서 제공하는 각 재해예측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방재 카르테

홍수 재해예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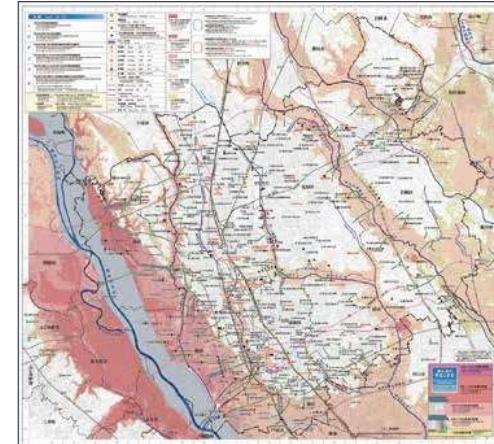
● 최대 규모의 호우를 가정하여,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범위와 침수심 등을 보여줍니다. ‘아라카와 강, 이루마가와 강’을 포함해 5종류의 예측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측도는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침수 깊이 50cm 미만부터 10m 이상까지 총 5 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침수 예상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침수가 예상되지 않는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및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경로 등을 확인해주세요.

호우 상황에 따라 침수 수위가 달라지는 장소도 있으므로 다양한 대피장소와 대피경로를 알아둡니다.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시에서 고령자 피난, 피난 지시 등이 발령됩니다. 대량의 하천물이 범람하는 경우, 제방 근처의 가옥이 파괴 또는 유실되거나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둔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피난하십시오.



내수 해저드 맵

● 하수도 등의 배수 능력을 넘는 폭우로 인해 내수 범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정되는 침수 구역이나 침수 깊이, 피난 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침수 깊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 경로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폭우가 계속되면 홍수가 될 수 있으니 기상, 하천 관련 경보 및 대피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 정보를 잘 읽고 평소부터 수해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내수) 방재 맵



내수 해저드 맵 정보면(표지)



내수 해저드 맵 지도면(표지 예)

위험 확인 (재해예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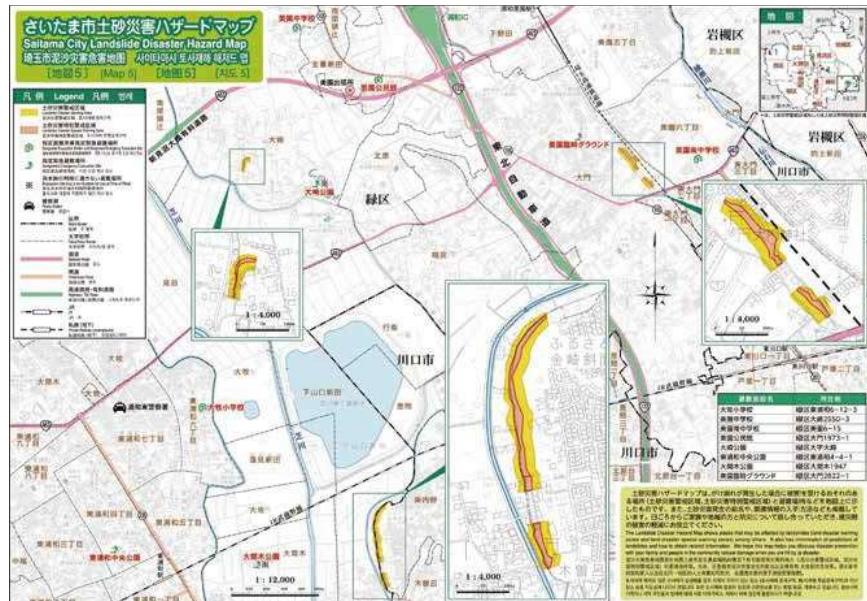
토사 재해예측도

- 산사태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일한 토사 재해는 금경사지 붕괴입니다.

주택, 직장, 평소에 자주 들르는 장소 근처에 절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다양한 대피장소, 대피경로를 알아둡니다.

토사 재해 경계 정보가 발표되면 시에서 피난 지시 등의 피난 정보를 발령하지만, 그러한 지시나 정보가 없더라도 신변에 위험이 느껴지면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 확인 (시의 정보 시스템)

사이타마시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재해에 대비합시다.

사이타마시 수위 정보 시스템

- 시내에서 관측한 수위 정보와 카메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수위 정보 시스템

각 관측 지점의 수위 그래프와 카메라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우 시 정보 수집에 활용하세요.



방재 도시조성 정보 맵

- 사이타마시 지도를 통해 재해 리스크 정보를 발표합니다.



사이타마시 지도

자택 등의 주소를 입력하면 원하는 장소 주변의 재해 리스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시 발생한 화재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을 나타낸 '연소 리스크',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피로를 막을 가능성 등을 나타낸 '피난 곤란 리스크' 등 지진 재해에 관한 정보 외에도 주요 하천의 홍수 재해예측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직후의 행동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당황하지 않도록 알맞은 행동 수칙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 진도 5약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TV나 라디오, 휴대 전화 등으로 긴급지진 속보가 발표됩니다.
- 발표 후 진동이 오기까지는 수 초에서 수십 초 정도가 걸립니다.

시내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예측되었을 때, 지진이 도착하기까지 일정 시간의 유예가 있는 경우에만 J경고(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를 통해 방재 행정 무선에서 자동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 화기를 확인하고, 불이 났으면 초기진화를 시도합니다.
- 가족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대피준비물을 준비합니다.
- 유리 조각 등에 다치지 않도록 신발을 신습니다.

토사 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재빨리 대피합시다.



긴급지진 속보

지진 발생

1~2분

3분

5분~10분

10분~몇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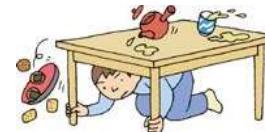
~3일 정도

- 튼튼한 책상 밑에 숨는 등 우선은 자기 몸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 불 단속을 합시다.

흔들림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큰 진동이 가라앉은 뒤에 확인합니다. 도시가스는 계량기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탈출로를 확보합시다.



- 이웃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요배려자가 있는 집은 적극적으로 행羹시다.

- 여진을 조심합니다.

큰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에 더욱 큰 진동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웃과 협력하여 소화 및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 틈틈이 TV나 라디오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가옥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빨리 피난장소 등으로 대피합시다.



‘우리 집 방재대책’을 체크하자

9월 1일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는 특히 태풍이 자주 접근하고 상륙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지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방재의 날은 물론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방재의 날로 여기며 ‘우리 집 방재대책’을 체크해 봅시다.



큰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재해예측도나 방재 카르테를 보면 알 수 있어. 함께 확인해보자. (5~7 페이지 참고)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9, 10, 20, 21 페이지 참고)



지진이 일어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도와주겠지?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곧바로 달려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 이웃 주민과 힘을 합쳐 서로 돋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역마다 자주방재조직이 있는 거야. (41~43 페이지 참고)



바깥에 혼자 있을 때는 휴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면 될까?

재해 시에는 전파가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재해용전언다이얼이나 재해용전언판 사용법도 알아두는 게 좋아. (14 페이지 참고)



뉴스를 보면 지진뿐 아니라 폭우와 홍수도 무서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에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상정보 지식을 익힐 필요도 있어. (30~34 페이지 참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불안해.

방재행정무선 외에도 TV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방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침착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해. (37~39 페이지 참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웃집 할머니는 괜찮을까?

노인이나 장애인 외에도 아기를 보호 중인 엄마와 임산부, 외국인은 대피할 때 도움이 필요하니까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44~46 페이지 참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음식물과 식수 이외에도 몸을 지켜주는 방재용품, 폐적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생활용품 등을 준비해두면 좋아. 일반적으로 음식물과 식수의 목표 비축량은 7일분이야. 비축품은 모두가 아는 장소에 놓도록 하자. (15 페이지 참고)



재해 시 대피소 생활을 할 걸 생각하면 좀 불안해.

모르는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면 생활 존중이라든가 여려모로 배려할 부분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워.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집에서 대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17~19 페이지 참고)



방재는 정말로 중요하구나.

맞아. 그리고 응급 처치 방법이나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아두면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 (52, 53 페이지 참고)



대형 태풍이 걱정이야.

그렇지. 반경 500km 이상의 태풍은 풍속이 초속 40m를 넘는 것도 있어서 집에 있을 때도 위협이 느껴지니까. 대형 태풍이 왔을 때는 사이타마시가 자주피난민을 위해 설치해놓은 대피소에 가는 방법도 있어. 이 경우, 필요한 음식물과 식수는 본인이 쟁겨야 해. (15, 16 페이지 참고)



서바이벌 카드, 방재·긴급 시 안심 카드소개

사이타마시는 만약의 사태에 도움이 되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침착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둡시다.

※서바이벌 카드와 방재·긴급 시 안심 카드는 사이타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시 서바이벌 카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평상시 대비책, 점검 사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휴대용 방재 매뉴얼로써 평소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서바이벌 카드

사이타마시 방재·긴급 시 안심 카드

주소, 이름, 생년월일의 정보 외에도 긴급 연락처, 집합장소(대피소)나 병명, 혈액형, 단골병원 등을 적어두는 카드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면 만약의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족의 연락처 및 대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등에게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재·긴급 시
안심 카드

비상시 연락 수단

대형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재해용 전언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방재 수도권 넷

재해용전언다이얼 ‘171’ 사용방법

재해 발생으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재해지의 유선전화에 30초 이하의 메시지를 녹음 또는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 용량 제한이 있어서 무한정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인(음성)을 녹음할 때

1 7 1 을 입력

▼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녹음을 원하면 **1** 을 입력

▼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재해지의 유선전화번호를 **시외 국번부터** 입력



▼ 메시지 녹음 (30초 이내)

재인(음성)을 재생할 때

1 7 1 을 입력

▼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재생을 원하면 **2** 을 입력

▼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재해지의 유선전화번호를 **시외 국번부터** 입력



▼ 메시지 재생

さいたま市防災・緊急時安心カード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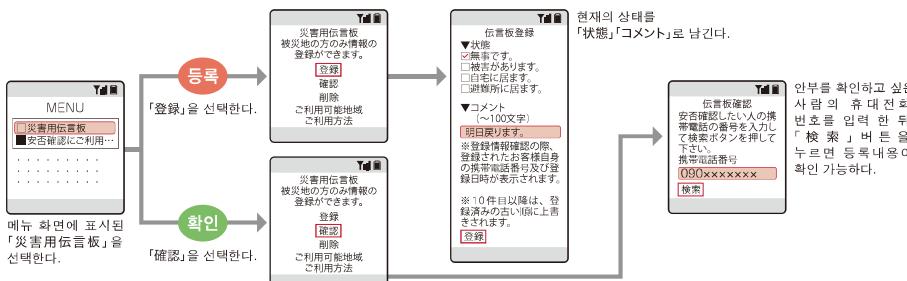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재해용전언판

재해지에서 휴대 전화 및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문자로 전언을 등록하면,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국에서 해당 전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1’과 재해용전언판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방재 수도권 넷’ 홈페이지의 ‘**‘거가 곤란자 대책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연락법

이메일·SNS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화로도 가능합니다.

공중전화

재해 발생 시 일반 회선보다 공중전화
회사인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apni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재해용전언판을
비롯해 인터기관, 각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부 정보를 전화번호 또는 이름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대전 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등록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비상시 대피준비물·비축품

재해가 발생한 후, 피난에 필요한 물품을 양손이 자유로이 사용 가능 한 배낭 등에을 넣어서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해둡시다.

또한, 규칙이나 짐에 얹매이기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여 생각하여 주세요. 장기 대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대피를 마친 후, 나중에 따로 자택에 가지러 가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자택 대피의 경우에는 재해 복구작업이 끝날 때까지 며칠간 생활할 수 있도록 비축품을 나누어서 준비해둡시다.

체크리스트

기본 대피준비물	□ 휴대용 화장실	□ 통조림	연료
귀중품류	□ 수건	□ 간이식(사탕, 초콜릿 등)	□ 휴대용 가스버너
□ 인갑	□ 티슈	의류품	□ 여분의 가스통
□ 현금	□ 물티슈	□ 속옷	□ 고체 연료
□ 예금 통장	□ 필기도구	□ 양말	생활용품
□ 면허증	□ 메모장	□ 긴 팔	□ 담요
□ 보험증	□ 비닐봉지	□ 긴 바지	□ 얇은 이불
피난용구	구급용구, 위생용품	□ 방한 재킷	□ 침낭
□ 비상용 라이트(손전등, 헤드라이트, 넥 라이트)	□ 구급 상자(반창고, 소독약, 영양보조식품)	□ 우비	□ 냄비
□ 휴대용 라디오	□ 쳐방전이나 쳐방전 기록서 사본		□ 주전자
□ 예비 견전지	□ 상비약(위장약, 변비약, 지병약)		□ 간이 식기(나무젓가락, 종이 접시, 종이컵 등)
□ 보조배터리(견전지식)	□ 세면용품	기본 비축품	
□ 헬멧	□ 치약 세트	식료품	
□ 방재 모자	□ 구강 세척제	□ 식수	
생활용품	□ 마스크	□ 쌀	□ 랩
□ 목장갑	□ 일회용 손난로	□ 통조림	□ 알루미늄 포일
□ 라이터	□ 소독 시트 등 감염 대책품	□ 즉석식품	□ 간이화장실
□ 강통 따개	비상 식품	□ 수프	□ 양동이
□ 랜턴	□ 음료수	□ 조미료	□ 공구류(밧줄, 장도리, 삽 등)
□ 나이프	□ 건빵	□ 연류	□ 신문지
		□ 과자류	□ 천테이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비

기본 대피준비물에 더해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 및 요배려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유용한 물건 또는 여성에게 필요한 물건을 함께 갖춰두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영유아,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유용한 물건		여성에게 유용한 물건		반려동물이나 도우미견에 유용한 물건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수유가리개	<input type="checkbox"/> 생리용품(생리기간 1회분)	<input type="checkbox"/> 펫 푸드	<input type="checkbox"/> 케이지	
<input type="checkbox"/> 일회용 젖병	<input type="checkbox"/> 보자 건강 수첩	<input type="checkbox"/> 팬티라이너	<input type="checkbox"/> 물	<input type="checkbox"/> 허대용 비데	<input type="checkbox"/> 상비약
<input type="checkbox"/> 이유식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마크	<input type="checkbox"/> 위생 팬티	<input type="checkbox"/> 종이 팬티	<input type="checkbox"/> 연고 (민감한 부위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예비 목줄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 대응식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input type="checkbox"/> 휴대용 비데	<input type="checkbox"/> 컵이 달린 속옷	<input type="checkbox"/> 신축성 없는 목줄	<input type="checkbox"/> 보행용 가슴줄
<input type="checkbox"/> 종이컵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유용한 물건		<input type="checkbox"/>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봉투	<input type="checkbox"/> 일회용 사료접시	<input type="checkbox"/> 천테이프
<input type="checkbox"/> 숟가락	<input type="checkbox"/> 성인용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input type="checkbox"/> 스킨케어 용품	<input type="checkbox"/> 배변 패드	<input type="checkbox"/> 수건
<input type="checkbox"/> 종이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종이 팬티	<input type="checkbox"/> 틀니	<input type="checkbox"/> 화장수	<input type="checkbox"/> 브러시	<input type="checkbox"/> 이동장
<input type="checkbox"/> 비데 물티슈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input type="checkbox"/> 틀니용 세정제	<input type="checkbox"/> 클렌징 시트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input type="checkbox"/> 미아 방지 목걸이(주인의 연락처, 기타 긴급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휴대용 엉덩이 세정기	<input type="checkbox"/> 간호용품	<input type="checkbox"/> 돋보기			
<input type="checkbox"/> 포대기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아기 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수첩	<input type="checkbox"/> 헬프 마크			
<input type="checkbox"/> 가제 손수건					
<input type="checkbox"/> 소독용 시트					
<input type="checkbox"/> 턱받이					
<input type="checkbox"/> 모유 패드					

주택 대피 생활을 할 때의 포인트

대피소는 집이 큰 피해를 입어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대피소에서는 공동생활을 하므로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려우며, 주거공간과 물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주택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익숙한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주택 대피'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또한, 재해 후에 무리하게 출근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부의 경우는 서로를 돌보며 육아에 함께 힘쓰도록 합시다.

① 주택 대피 판단

■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확보합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화기를 확인한 후, 한시 집합 장소나 지정 긴급대피장소(47페이지 참고)로 대피합니다.

위험이 물러가면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가 미미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돌아가 주택 대피를 합니다.

참고로 재택 이재민은 대피소에 직접 방문해 이재민 카드를 접수하거나 자주방재조직의 보고를 통해 이재민 명단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대피소에서 정보와 물자를 제공받게 됩니다.



② 주택 정리



■ 가구나 가전제품이 쓰러졌거나, 유리 등이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집안을 정리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두꺼운 장갑을 끼거나 통굽 신발을 신어서 몸을 보호합니다.
- 창문이 깨졌을 때는 천테이프나 천막지, 골판지 등으로 응급 처치를 하여 창문을 막습니다.

③ 수도·전기·가스 등의 대체품

재해로 인해 수도·전기·가스 등의 라이프 라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식수와 비상용 전등,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준비해둡니다.
- 여분의 건전지와 가스통 등도 마련해둡니다.
- 또한,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용 화장실을 갖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19페이지 참고)

④ 방범 대책

지금까지 재해지에서는 혼란을 틈타 범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대피 시에는 평소보다 높은 방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어딘지 수상하거나 불안할 때는 침착하게 '#9110'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혹은 상담을 합니다.

■ 방범 포인트

●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금니다

가능하면 혼자 행동하지 말고, 호루라기나 호신용 경보기를 들고 다니며, 어둡거나 인기척이 없는 장소는 피하고, 수상한 사람은 조심하는 등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합니다.



●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합니다

SNS 등에는 유언비어 등 확실치 않은 정보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방문자를 조심합니다

재해 시에는 재해지의 불안을 틈타거나 선의의 마음을 억으로 이용하는 사기 및 악덕 상술의 피해가 급증합니다. 방문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혼자서 대응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 주변을 정돈합니다

집 주변을 정돈하여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도난 등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현관 근처에 인체 감지 센서가 달린 방범등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비축 포인트

대형재해가 발생하면 상점의 물건이 동나고, 공공 지원 물자가 곧바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택 대피'를 염두하고 두고 있다면 15페이지에 실린 체크리스트의 비축품 이외에도 식료품과 식수 등을 넉넉하게 준비해두도록 합시다.

비축품의 예시

● 식료품

'자택 대피'를 준비한다면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 등의 비상식을 7일분 이상 비축합시다.

영양보조식품이나 조미료도 함께 챙겨두면 편리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영유아, 알레르기 보유자 등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식료품이 있으면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 식수

'자택 대피'를 준비한다면 1인당 1일 3ℓ를 기준으로 7일분 이상 비축합시다. 또한, 물 배급을 받을 때를 대비해 급수 탱크를 준비합니다.

응급 급수 장소는 사이타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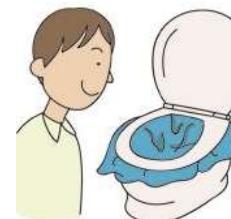
롤링스톡(회전 비축) 방법을 활용합니다

롤링스톡이란 평소에 먹는 식품을 약간 넉넉하게 사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먹고, 줄어든 양만큼 새로 구매하여 신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늘 일정량의 식품을 비축하는 방법입니다.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 외에도 면류, 과자류, 병조림 가공식품 등 유통기간이 긴 식품을 마련해둡시다.

● 비상용 화장실

'자택 대피'를 준비한다면 1인당 1일 5회분 기준으로 7일분 이상 비축합시다.



또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휴지, 램, 알루미늄 포일, 비닐봉지 등을 준비해둡니다. (15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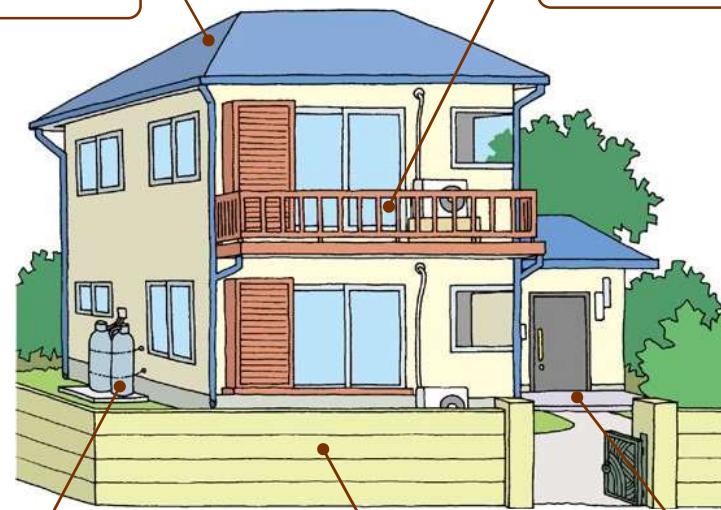
안전대책 포인트 <집 외부>

지진이 발생하면 집 주위에도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위험한 장소를 점검하고 보강 및 고정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태풍 등으로 강풍이 불 때도 효과적입니다.

집 외부의 안전대책 포인트

● 지붕

기와나 안테나가 불안정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강합니다.



● 베란다

정리 정돈을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화분이나 에어컨의 실외기는 위치를 바꾸거나 고정시킵니다.

● 프로판 가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반에 올려놓고 사슬로 벽에 고정합니다.

● 블록담

기초 부분이 땅 속에 단단히 자리 잡지 않았거나, 내부에 철근이 없으면 보강합니다. 균열 및 기울어짐 현상을 보이거나 철근에 녹이 생겼으면 수리합니다.

● 현관 주위

자전거와 화분처럼 출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놔두지 맙시다.

1981년 5월 31일 이전의 '구 내진기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내진성능이 부족할 수 있으며 대지진 등으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내진 진단을 받고 필요에 따라 내진 개수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연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불연화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